

전북 금융중심지 총력전...국제금융센터 재시동

금융위 평가 앞두고 대응 강화 7-8월 현장실사 본격 진행 사업시행자 선정도 본격화 정치권·도민 공감대 결집

전북도가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도는 선 정부정책 반영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도적으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의견 수렴, 도민 공청회, 도시계획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마치고 지난 1월 29일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평가 용역기관 선정(5-6월)에 이어 7-8월 현장실사, 10월까지의 평가 용역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 절차를 앞두고 금융 인프라 개선·정치권과의 연대 강화·도민 여론 결집을 통해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연계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최근의 여론 변화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7-8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30층 내외의 랜드마크 시설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



만성동 전북국제금융센터 예정지 위치도

<사진=전북도>

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중심지 지정 지연과 민간 투자여건 악화, 입주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최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생태계 확대, 4대 금융그룹의 전북 거점 조성 발표,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 진출, 핀테크 육성 기반 확충 등으로 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북이 국민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인프라로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둔화, 건설비 상승, 민간 투자심리 위축 등 외부 여건까지 겹치면서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필요성은 크지만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제금융센터가 필요하지만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금융기관 집적과 금융 공공기관 이전 기대,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이 맞물리며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며 "변화된 여건을 기회로 삼아 전북국제금융센터 조기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정치권과의 연대와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의 지정 평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와 지역 정치권, 중앙정치권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 정부위원회와 여야 지도부,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를 강화해 평가 과정과

후속 인프라 조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는 국가 금융정책 방향,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공기관 이전 기조 등 복합적인 정책 판단이 작용한다.

특히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 운용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이 기존 금융중심지와의 경쟁 구도로 비춰질 경우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특정 지역에 대한 추가 특혜가 아니라,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전북은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맡는 기능 분담형 국가 금융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정치권과 함께 분명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행정과 정치권, 국민연금, 금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대 구조를 강화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본격 나선다.

이번 서명운동은 도민은 물론 출향도민, 경제·학계·금융권·시민사회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와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단에 전북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정철 기자



<사진=박희승의원실>

박희승, 강뉴합창단 초청 평화음악회 주최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합창단 한-에티오피아 우정 되새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강뉴합창단 한국 초청 국제보훈 평화 프로젝트' 음악회를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정희용·전하람 국회의원과 국가보훈부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따뜻한하루가 주관했으며 LG가 후원했다.

강뉴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소속의 최정예 부대로, 총 6,037명이 참전해 단 한 명의 포로도 발생하지 않은 뛰어난 전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강뉴합창단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손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방한해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단원들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한-에티오피아 우정을 기리는 노래를 통해 감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테스파에 아스마마우(Tesfaye Asmamaw, 95세) 용이 한 국을 처음 방문해 강뉴합창단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또한 국가보훈부가 수여하는 사

도매달 수여식도 함께 진행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희생을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희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기념탑을 참배하고 참전용사 및 후손들을 만난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보훈부 강윤리,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강뉴합창단의 노래는 큰 울림이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며 "오늘 그 감동을 국회에서 다시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함께 싸워주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헌신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음악회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보훈의 가치가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김의겸 "호남 반도체 전북 분산배치해야"

"한 회사는 전북 배치" 제안 "광주전남 집중도 바람직 않아" 전북 유치 당위성 제기 전력·용수 부담 분산 강조



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에도 반도체를...]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사촌이 눈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호남 반도체 투자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마이뉴스'의 반도체 관련 기사와 관련, "이분월 기지는 오랫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제조 시설의 위

협성을 경고하고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 시대의 '선각자'라면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 내부에서도 철저한 분

산 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는 한 회사는 전북에, 다른 한 회사는 전남·광주권에 배치하는 전략"이라며 삼전뉴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전북과 광주전남이 분산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 반도체와 관련 국민의힘과 영남권의원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 중 하나는 호남, 하나는 영남에 분산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도체 공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 등에게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미흡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전·전북 또는 추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특성상 신속한 구조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 도로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통보하는 '농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주시 생애주기별 '함께금융 아카데미' 추진

**맞춤형 금융교육 운영
금융사기 예방 노후 준비 등
실생활 중심 교육 확대**

전주시 하반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함께금융 아카데미'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은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직

장인 △노인 세대 △장애인 및 취약계층까지 모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금융 이해 향상과 건전한 금융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시는 기존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에 기후금융 등 특화금융 분야를 새롭게 반영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투

자테스트(FTT) 자격 과정을 도입하는 등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금융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대상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 △청년 대상 '함께 시작하는 금융상식' △직장인 대상 '함께 쌓아가는 금융자산' △노인 대상 '함께 대비하는 노후금융'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함께 예방하는

금융사기'와 '함께 힘을 주는 자립금융' 등이다. 또 시는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최근 증가하는 SNS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연금·투자·노후자산 관리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조직문화활성 '월간 특강' 운영

직원 관심사 '경청' 실력있는 전북경찰 성장

전북경찰청 직원 소리에 경청한 배움과 소통이 있는 조직문화 활성화 위한 인문학 소양이 운영된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지난 24일 '6월 월간특강'을 마련해 운영했다. 전북경찰청 '월간특강'은 '매월 1회', '문화가 있는 수요일' 직원들의 폭넓은 문화를 접해 배움을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관련해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강의 주제를 선정, 매월 해당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월간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첫 번째 월간 특강에는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유티산 교수'가 초빙됐다. 류 교수는 "현장 경찰을 위한 AI 활용법, AI 범죄대응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 /김영태 기자

수강을 마친 직원들은 "항후 업무와 일상에 활용돼 보아겠다"며 "AI가 경찰업무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서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출했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 △7월(전라도 이야기) △8월(오페라, 뮤지컬과 함께하는 삶) △9월(금융의 흐름) △10월(자연과 대화하는 시민을 만나) △11월(노래와 함께하는 인생이야기) △12월(클래식을 통해 인생을 만나) 등 다양한 분야 강의를 계획 중에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직원들의 필요를 경청하고,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월간특강'을 통해 더욱 실력 있는 전북경찰로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기대효과로 실질적 공감형 특강 운영을 통해 더욱 실력있는 전북경찰 성장에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민주당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후보 선출

의장 후보 최주만 부의장 후보 김동현 당선인

제13대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25일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선출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의장단 후보 선출 투표에서 4선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당선인을 차기 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3선 김동현(삼천1·2·3, 효자1동) 당선인을 부의장 후보로 각각 선출했다.



최주만 의원



김동현 의원

최주만 당선인은 12대 의회 하반기 부의장을, 김동현 당선인은 12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상임위원장단 후보로는 운영위원장 온혜정(우아1·2, 호성동), 행정위원장 최명권(송천1·3동),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영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문화경제위원장 이상국(효자5동), 도시건설위원장 최서연(진북, 금암, 덕진동) 당선인이 확정됐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후보들은 12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을 거쳤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돼 7월1일부터 재선의원 반열에 오른다. 민주당을 대표해 의장 후보로 나서게 된 최주만 당선인은 "독단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준엄한 뜻이 전주시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소민 기자

김동현 부의장 후보는 "말로만 하는 의정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며 시민께 신뢰받는 실천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당선인들은 다음달 1~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출마해 전체 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13대 전주시의회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의석 36석 중 절반이 넘는 26석을 민주당이 점유했고, 나머지 10석을 조국혁신당(5석)과 진보당(1석), 무소속(4석) 당선인이 차지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지역 장애인 자립·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25일 착수보고회 개최

전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그리고 복지서비스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전개됐다. 관련해 25일 윤동욱 전주 부시장과 유역수행기관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 17명은 '제3기 전주

시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복지 수요와 정책 환경을 반영해 향후 5년(2027년~2031년)간 추진할 전주 장애인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전주시 장애인 정책 자원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자 실태·욕구 조사 △공공 및 민간기관 종사자, 전문가 의견 조사(FGI) △전주시 장애인복지와 소관 각 조례에 따른 계획 반영 △장애인 시책의 수립·시행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는 사항 등이다. 특히 시는 향후 수립될 종합계획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냉방시설·냉장 생수 지원
일요일 포함한 상시 운영**

오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주시 이주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된다. 이에 전주시는 25일 이주노동자 배달·대리운전·택배 등의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예년보다 2주 빠른 이주노동

자 쉼터 운영에 돌입했으며 쉼터는 오는 9월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상시 운영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관련해 전주지역 이주노동자 쉼터는 현재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덕진구 송전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쉼터에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자 △택배노동자 등 하루 평균 130여명

의 이주노동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쉼터 내 냉방시설 안정적인 가동과 냉장 보관한 생수를 비치해 무더위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이 휴식하며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확대 운영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이주노동자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 전문가 연계 상담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이륜차·폭주족 일제단속

**총 52건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무면허 운전자 검거**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24일 도내 전역과 주요 거점 통한 이륜차 폭주 사고 예방 위한 주·야간 선제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전역 일제단속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22건 △신호위반 8건 등 총 52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된 이륜차·폭주족들에게 통고처분 했다. 경찰은 이어 야간·심야 시간(24일 20시~25일 4시)에는 전주, 군산, 익산 등 폭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24일 도내 전역과 주요 거점 통한 이륜차 폭주 사고 예방 위한 주·야간 선제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 순찰 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25일 심야 시간대에는 덕진구 관내 폭주 의심 신고에 싸이카, 암행순찰차, 교통경찰 등 경력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요 교차로에 거점 배치 및 위력순찰을 전개하며 무면허 운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폭주족의 불법 폭주 행위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도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여름 물놀이 사고 막는다

**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 실시
실제 재난 시 대응력 강화**

전북소방본부가 도민들의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을 특별구조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수난사고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구조훈련은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지휘아래 △운지제 △부안댐 △옥정호 일원에서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이어졌다. 훈련에서 특수구조대는 실제 수난 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구조대원 안전 확보, 익사자 구조·인양 기술 숙달, 유형별 구조 절차 반복 훈련 중

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은 △수중 수색 △상황 판단 △인양 보조 △장비 운용 △구조대원 간 임무 분담 등을 핵심으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는 수난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유형의 실전형 훈련을 통해 전문 구조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 전문훈련 강화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구조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북동 새마을부녀회·주민센터 길거리 환경정비

전주 길거리 환경미화 조성에 새마을부녀회가 앞장서고 있다. 전주 진북동 새마을부녀회들은 25일 진북동 소재 길거리 잡초 등을 제거하며 쾌적한 거리 활동을 펼쳤다. 전주 진북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이날 폭폭 찌는 여름더위에서도 진북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주민센터 주변과 인도 등의 잡초를 제거했다. 특히 이날 새마을부녀회·진북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길거리환경미화 애로사항에는 인도 보도블록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잡초들을 예초기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일일이 손수 제거하는 어려운 환경이 전개됐다. /김영태 기자

하지만 이들은 지역민들의 쾌적한 환경 제공 위한 각오로 더위를 참으며 △소미 △나 등 사용해 낫낫이 제거하고 빗자루를 활용해 깨끗이 마무리했다. 한편 전주진북동 이순이 새마을부녀회장과 회원, 이명옥 주민센터 동장 그리고 동참한 직원들은 지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이들은 "진북동을 찾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언제나 깨끗한 환경에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내 환경정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전북은행 청년 금융역량 강화

맞춤형 금융특강 전개

전주시가 전북은행과 함께 청년들의 금융역량 강화 위한 금융특강을 마무리했다. 금융특강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강에는 박복희 전주대학교 보험금융학과 교수와 최정은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강의는 △재무관리 및 자산 형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사기 예방 △신용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은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일상에



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중

심으로 재무관리 방법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 금융사기 예방법, 신용점수 관리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시는 앞으로도 AI 활용, 취업, 자기개발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특강을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북도, KISTI와 침수 대응 디지털 전환 ‘맞손’

데이터 기반 침수 예측 AI 분석으로 위험지역 확인 및 현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도시 침수 대응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도는 25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KISTI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 침수 대응 기술 실증(PoC) 결과 공유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기술의 정책·행정 활용 가능성 △지자체 확산 및 기관 간 후속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들은 데이터 기반 침수 예

측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비가 내리기 전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도시 침수 대응의 디지털 전환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협력은 행정기관과 연구 기관이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안전행정망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하반기에는 강우 시 사전에 마련한 침수 시나리오로 위험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대비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TI의 도시 침수 분석 기술은 강우량, 지형, 배수시설, 하수관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실시간 침수 위험도를 예측하고, 과학적 행정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기존 고정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부서와 담당자 역할별로 기능을 맞춤

구성하는 ‘위젯형 플랫폼’을 전북의 실정에 맞게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재난상황실 종합 상황관리와 재난 담당 부서는 예측 기반의 사결정, 현장 대응 인력은 모바일 기반 대응 등을 수행해 사용자 중심의 재난 대응 업무 지원 기능이 구현될 전망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관리 기술을 KISTI의 현안해결지원플랫폼과 연계해 실제 재난 대응 업무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앞서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KISTI, 전북TP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 대응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KISTI의 데이터 기반 기술을 연계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과학화·고도화

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기관 중심의 대응을 넘어, 현장에서 사진·영상 등을 등록하면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참여형 상황보고 체계도 시험 운영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플랫폼 기반 침수 대응 역량 역시 선제적으로 다져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타픽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과거 경험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STI 관계자는 “전북도와와의 협력으로 개발한 기술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재난 대응 혁신과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장은 지난 24일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의 미래 그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 인턴 채용 결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장은 지난 24일 자립준비청년 건강강 사회 정착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안(안아줄게)아(아프지마)드림(Dream)’ 사업은 지난 21년부터 공사와 전북도, 전북도자립지원재단,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드림 ON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자립준비청년 출신 기업가의 성장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자립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전북지역 자립준비청년 및 협력기관 직원 등과 함께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커피 창업자인 김성민 대표가 멘토로 나서 자신의 성장 과정과 자립 경험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특히 김성민 대표는 보육원 퇴소 이후 겪었던 시행착오와 도전, 사회적기업 창업 과정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공개채용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인턴을 선발했으며 서류 전형 과정에서도 사회형평적 차원에서 가점을 10%로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잡아드림’, ‘채워드림’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며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수발아 저항성 유채 개발

유전자교정 기술 이용 종자 휴면 상태 유지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해 수발아 저항성 유채를 개발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폭우와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확을 앞둔 작물이 비와 습기를 견디지 못하고 밭에서 미리 싹을 틔우는 수발아가 문제 시 되고 있다.

수발아가 발생하면 씨앗 품질이 크게 떨어져 결국 수확량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식용유와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널리 쓰이는 유채는 수확기가 장마철과 겹쳐 수발아 피해가 잦다.

실제로 남부 지역에서 유채 수확이 늦어질수록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돼 수확량이 감소하고 지방산 조성 변화로 품질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유채가 가진 수발아 관련 유전자의 염기서열 중 한 개의 염기를 변형해 수발아 저항성 유채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유채 수발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전자를 이용했다.

이 유전자는 평소 식물 호르몬인 앱시스산 관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종자가 발아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유채는 종자 발달 과정에서 장마와 같은 고온 다습 조건에 노출되면 종자가 쉽사리 발아한다.

그러나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해 TIFY10A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 유채는 종자가 오랫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해



수발아 저항성을 보였다. <사진=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Plant Science(IF 5.6)'에 게재하고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김영태 기자

국토정보공사 ‘나눔문화’ 지역사회 상생·협력 앞장

나눔 바자회 개최 수익금 전액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실천에 나섰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4일 완주군 선덕보육원을 방문해 보육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익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수익금은 지난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나눔문화 확산·탄소저감 실천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진행한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통해 마련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수익금 전달 기관으로 사회공헌과 지역상생, 윤리·인권 향상 등을 고려해 선덕보육

원,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군산성품령상당소 등 총 세 곳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18일 군산성품령상당소 수익금 전달을 시작으로 이날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선덕보육원을 끝으로 기부금 전달을 마쳤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수익금 전달을 통해 기부·나눔 행사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윤한필 경영지원본부장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시작한 이번 행사의 여정이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소중히 기부금으로 전달돼 보람을 느낀다”며 “공사는 나눔문화 확산과 탄소저감 실천 등 ESG 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취약계층지원,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사진=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박상수 군산지사장, 보훈대상자 사회공헌활동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장 ‘호국보훈의 달 6월’ 사회공헌활동에 한창이다.

박상수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장은 지난 24일 군산 소재 보훈대상자를 찾아 감사물품 전달행사를 가졌다.

보훈대상자는 전북서부보훈지청 통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가족’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지사장은 이날 유공자, 국가보훈

가족 어르신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안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군산지사 직원들은 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기사용 관련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여름맞이 침구류 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상수 군산지사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온누리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취약계층 보금자리 지원

온누리신협이 초록우산 전북본부의 추천을 받아 남원시 노암동 소재에서 지역 내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전국의 신협은 지역 내 아동이 속한 주거 취약가정에 도배, 장판, 청소 등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사회마다 ‘신협따움’을 피워내게 된다.

특히 습도 조절 유해물질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친환경 전주천지 벽지 및 장판지도 시공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온누리신협 박근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8명과 전주한지협동조합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남원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노암동 행정복지센터(센터장 진중훈)에서도 일손을 도와 사회공헌 네트워크가 형성된 뜻깊은 행사였다.

덕분에 집안 내·외부 청소와 벽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해당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용품, 한지로 만든 생필품을 제공했으며 화합을 지원하고자 장학금 50만원도 전달했다.

한편 온누리신협은 행복한집 프로젝



트와 매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취약계층 대상 난방용품 나누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온누리신협> /정소민 기자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지난 24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회원과 산·학·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발표와 정기총회, 친목만찬 등으로 진행됐으며, 토목기술 발전과 회원 간 교류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술발표에서는 전북대학교 김남훈 교수가 ‘DEM 표면기반 지형독립모델을 활용한 RPC 생성방법론’을, 군산대학교 한정우 교수가 ‘MODWT 기반 다중 스케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복합가

운용실적 및 결산보고와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학회 발전과 지역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기관 관계자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22대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장 이·취임식에서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이 신임 지회장으로 취임했다. 최정일 신임 전북 지회장은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가 회원들의 학문과 기술,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지역 현안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회원들의 학문과 기술,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외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과학탐구 학교 121곳 지원

총 20억 투입해 첨단 실험 교구 및 기자재 확충... AI·디지털 기술 접목 교육 환경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121곳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증적 과학탐구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AI·디지털 과학탐구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학교 급별 선정 규모는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총 121개교다.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 여건과 제출된 탐구활동 운영 계획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학교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탐구 및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일선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도내 학교 간 디지털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을 확보한 각 학교는 해당 예산을 과학실 인프라 개편과 교구 확충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현상을 수치화하는 디지털 센서와 데이터 수집 장치를 비롯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SW) 연계 탐구 교구, 스마트 기기 등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기자재를 구매하게 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과서 중심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첨단 기기를 활용해 직접 실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탐구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탐구 중심 과학교육은 미래 인재 육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제13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 밑그림

전용태 위원장 유력 한정수 부위원장 거론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배정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25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전용태(완주·무주·진안), 이병도(전주갑), 장연국(전주을), 임종명(임실·순창·남원·장수), 한정수(익산을), 최종오(익산갑), 김남규(전주병), 김우민(군산), 박수형(비례) 의원 등 총 9명의 배정 윤곽이 드러났다. 해당 상임위의 전반기 사령탑인 교육위원장 자리에는 전용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한정수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교육위원장으로 낙점된 전용태 의원은 홍보성 수사를 배제하고 실무

중심의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전용태 의원은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디지털 교육과 지역 특화 교육 등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고, 여야를 넘어선 화합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을 통해 사실상 위원장단 낙점을 마친 제13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지도부는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제429회 임시회(최초집회) 본회의에서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다.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이틀간의 본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후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정읍 물빛축제’ 먹거리·체험 공간 운영자 모집

내달 1일까지 업체·단체 21개소 공개모집

정읍시가 내달 31일부터 사흘간 정읍천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정읍 물빛축제’에 참여할 먹거리 트럭(푸드트럭)과 체험 행사 공간(부스) 운영자 21곳을 내달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상인들의 축제 참여를 이끌고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둔 업체나 단체다.

전체 규모는 총 21곳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간식 먹거리 11곳, 먹거리 트럭 4곳, 주류 4곳, 체험 공간 2곳이다. 먹거리 구역은 전, 꼬치, 분식, 후식(디저트) 등 종류별로 나뉘어 운영한다. 주류 구역과 먹거리 트럭도 함께 배치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체험 공간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컵빙수와 화채 만들기, 아광 부채 만들기 등 여름 축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꾸릴 계획이다. 시는 축제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와 비교해 행사 공간 규모를 일부 조정했다.

모든 판매 식품에는 원산지 표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먹거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참가 접수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최종 운영자를 선정한다. 뽑힌 업체는 철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축제 기간 현장에서 직접 방문객을 맞이하게 된다. 올해 열리는 2026 정읍 물빛축제는 ‘올 여름 정(井)했어! 물빛 춤추는 정읍의 여름밤’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물과 빛,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연 중심의 야간 축제로 기획했다. 축제 기간에는 국카스텐, 하이키, 육중완밴드, 하하와 스킵 등 유명 예술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물놀이 전자 댄스 음악 파티와 ‘워터뮤지컬’ 등 무대위를 날릴 다양한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이학수 시장은 “물빛축제는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읍의 대표 여름 축제”라며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시화 공모전

고창군이 운곡습지 홍보를 위해 시화 공모전 ‘고창운곡의 시간:쓰고, 그리다’를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전은 ‘자연·유산·마을·예술을 잇다’를 주제로,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지원하고,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운곡습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담아내어 습지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겠다는 취지다.

공모 분야는 △시 △디카시 △시화 등 총 3개 부문이다.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 발표는 2026년 8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오는 11월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유천도서관 생태체험 교육 ‘성료’

익산시 유천도서관은 상반기 동안 운영한 어린이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초록배움터 생태체험 교육’과 ‘생글생글 생태체험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운영됐다. ‘초록배움터 생태체험 교육’은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활동과 자연 관찰 체험이 운영됐다. 노래·윺동·만들기를 접목한 숲놀이 활동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120여 명이 참여했다. ‘생글생글 생태체험 교육’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생태 학습장 내 미니 텃밭을 활용해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5주 동안 방울토마토와 상추, 허브식물 등을 직접 심고 가



꾸며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는 직접 재배한 작물을 수확해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먹으며 농작물 재배의 보람과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유천도서관은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유천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27일 관객 주도형 공연 막 올려

‘도랑파랑 춤추는 발가락’ 개최 완주군이 27일 오후 5시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공연 ‘도랑파랑 춤추는 발가락’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지역 공연 유치프로젝트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주최·후원하고 완주군과 ‘예술담은나라’가 주관하는 관객 주도형 문화향유 공연이다. 공연은 이대정랑 지휘와 곡승연 연출을 필두로 국내외 국제콩쿠르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바리톤 석성산, 피아노 최아현, 플루트 김정은, 색소폰 손주앙이 출연한다. 여기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타악기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된 관현악단이 합류해 100분간 다채롭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인다. /완주=김명곤 기자

‘도랑파랑 춤추는 발가락’은 이미 완성된 무대를 단편적으로 관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대 이면의 준비 과정까지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인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을 기획한 ‘예술담은나라’ 이대정랑 지휘자는 “클래식과 재즈, 퓨전 국악을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소통 감형 무대를 준비했다”며 “공연예술의 완성인 관객들이 많이 참여해 무대의 주인공이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이번 공연은 무대 위 결과물뿐 아니라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함께 나누는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혁신도정상 ‘우수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 고비살살: 예술이 가깝네’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2분기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지역 생활권 내 문화향유 기회를 넓힌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전북 고비살살: 예술이 가깝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형 문화브랜드 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6억 4800만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9억 2700만 원으로,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등 인구소멸지역 9개 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 주에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둘째·넷째 주에는 시·군 자체 문화사업을 연계해 도민이 매주 수요일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북형 생활문화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9개 시·군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55회를 운영했으며, 도민 10972명과 예술인 582명이 참여했다. 재단은 7~8월 휴서기 동안 지역과 운영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9월부터 9개 시·군 전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과 교육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제14회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공모 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	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중·고학생 응모 기간 8월지 도과지(9월 출제) 응모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	
대상 (3명) 전라북도교육청상 (1명) 전라북도의회상 (1명) 전라북도지사상 (1명) 최우수상 (4명) 전주시장상 (2명) 전주시의회상 (2명) 우수상 (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관북지회상 장려상 (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 (3명) 국회위원장

기타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주관,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전북타임스신문



취한성건설,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4일 취한성건설 정성우 대표가 모친상 조의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

지난 2019년에도 장학금을 건넨 바 있는 그는 뜻깊은 나눔을 한 번 더 실천하며 인재 육성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을 증명했다. 정성우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성우 대표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여름 김치도 명인 손맛으로” 익산 마스터클래스 3기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사계절 명인 김치 마스터클래스’ 3기 수업을 이어간다.

익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계절 명인 김치 마스터클래스’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3기 과정은 내달 8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9월까지 운영된다.

강의는 익산 제1호 김치 명인이자 깃도 가지김치연구소 대표인 신승주 명인이 맡아 김치 발효 비법과 계절별 깃갈 활용법, 조리 노하우 등을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여름과 초가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양근라페피치(7월 8일) △고구마순줄기김치(8월 6일) △감보쌈김치(9월 3일) △콩나물물김치(9월 17일) 등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8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익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에 게시된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이 김치 명인의 전문 기술과 지역의 미식 자산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익산만의 음식문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어청도 주요 개발사업 추진 상황 점검

군산시는 지난 25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항만해양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청도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부시장은 △국도외곽면적(어청도) 지원사업 △군산시 공공수도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잔해위협개선지구 지정 등 총 3개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촌마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부시장은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서비스를 개발해달라고 주문했으며,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항만해양과 관계자는 “국도외곽면적 어청도는 우리나라 최외곽에서 영도수호에 이바지하는 만큼 면적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삶 정착을 위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익산시가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전장으로 뛰어든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25일 익산시청 다목적홀에서 안보 결의를 다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엄숙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한편, 지역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9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며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시는 올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3만 원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에 이번 기념식을 통해 기념증 보훈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헌신적인 예우 확대와 든든한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쏟아온 정헌을 시장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사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우리 익산시 역시 참전용사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와 번영의 고귀한 정신을 온전히 계승해,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으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군 장병,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6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사회의 안보 의식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보훈 단체장, 참전유공자와 시민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례와 대화사, 기념사 낭독이 이어졌다. 참석자 전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장에 모인 이들은 전쟁이 남긴 아픔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공유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과 삶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만든 결과”라며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사회 곳곳에 보훈 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제왕근인회(회장 이쌍형)는 25일 정읍체육관에서 참전유공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열고 호국 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사회의 안보 의식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보훈 단체장, 참전유공자와 시민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례와 대화사, 기념사 낭독이 이어졌다. 참석자 전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장에 모인 이들은 전쟁이 남긴 아픔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공유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과 삶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만든 결과”라며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사회 곳곳에 보훈 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제왕근인회(회장 이쌍형)는 25일 정읍체육관에서 참전유공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열고 호국 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과 삶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만든 결과”라며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사회 곳곳에 보훈 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종합



<사진=군산원예농협>

군산원예농협, 경로당 어어컨 세척살균 지원

어르신 환경 개선 기여

군산원예농협은 농협파트너스와 함께 지난 24일 군산 관내 마을회관, 경로당 20여군데 대상으로 어어컨 세척·살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에어컨 세척·살균 지원사업은 군산원예농협과 농협파트너스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깨끗한 바람을 선물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 세척과 살균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작업은 단순한 필터 세척이

아니, 에어컨을 분해하고 내부 오염물 제거, 각 부품 세척, 냉각판 고압세척까지 실시해 방방 효율은 물론 내부 축적된 먼지와 곰팡이, 세균 등을 제거해 실내 공기질 향상과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도 환경 개선의 크게 기여한다.

군산원예농협 고계근 조합장은 “지원사업에 도움을 준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조합원 및 농촌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촌유학 가족 거주 시설’ 준공

8월 입주 시작

인구 유입 마중물 기대

정읍시가 농촌 유학 가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칠보면 신산리 일원에 10가구 규모의 체류형 거주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4일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과보고를 듣고 축하 인사말을 나누는 뒤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환영했다.

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거주 환경을 반영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후 약 9개월 만에 완성한 이 단지는 공동 이용 시설 1개 동과 단독주택 10세대로 이루어졌다. 각 주택에는 개별 텃밭과 가구, 가전제품 등 필수 생활용품을 갖춰 입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현재 2학기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그동안 거주 공간이 부족하거나 불편해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시는 관내 최초로 조성한 맞춤형 주거 시설이 유학생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이 인구 감소 위기에 빠진 지역 사회와 농촌 학교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유학이 활성화되려면 유학생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시설 준공이 농촌 학교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이끄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쓰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정읍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공원녹지 청사진 마련

시민의견 수렴…

내달 9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25일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035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35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과 녹지의 확충·관리 방안 등 중장기적인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계 전문가 토론회와 참석자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뿐만 아니라 내달 9일까지 접수되는 서면 의견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의견은 익산시청 녹색도시소성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익산시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녹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차로 확장

내년 4월 완공… 제거

메타세쿼이아 무상 제공

정읍시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 사거리~농산물도매시장) 613m 구간을 왕복 6차로로 넓히는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확포장 사업은 서부산업도로 주변의 급격한 도시 개발에 발맞춰 시민의 통행 불편을 선제적으로 덜어내고자 추진된다.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과정에서 갱점이 됐던 기존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 처리 문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기로 결론 났다.

애초 가로수를 보존하는 우회 노선 개설이나 나무를 캐내어 옮겨 심는(이식)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하지만 대형 나무가 도로 확장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고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랐다.

그 대신 해당 자리에는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나무를 새롭게 심는다.

이를 통해 가을철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거되는 수목은 단순 폐기하지 않고 자원 순환 차원에서 시민에게 환원한다. 사전에 나무 활용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당 수목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할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공사 기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서 신속히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논의

익산시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촘촘한 급식 지원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열고 지원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익산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수용 위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지원 방법과 급식 단가 결정 등 아동급식 사업 전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는 현재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1,300명에 대한 지속 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소득 기준 등 법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시는 급식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선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전통시장 안전·질서 잡는다”

정읍시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4일 샘고을시장과 우암로 상점가 일대에서 보행로 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시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시가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샘고을시장 상인회, 정읍소방서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시장 내부와 초산로, 우암로 일대를 돌며 상가 앞 객석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기준을 넘어 보행로에 물건을 내놓은 점포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안내하는 행정지도도를 실시했다.

이어 우암로 상점가 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햇빛

가리개와 접이식 비가림막 설치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실전 훈련도 함께 열렸다. 정읍소방서가 주관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해 점검단은 시장 안쪽 긴급 차량 출동로를 직접 살피고 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시장 구석구석에 안전 문화를 퍼뜨리는 기회로 삼았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즐겨 찾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기업 애로사항 청취

민선9기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22일, 군산 대표 기업인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 군산공장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준 당선인과 김대영 세아베스틸 경영기획본부장 등 세아베스틸 관계자와 김봉근 민선9기 인수TF팀 총간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기업의 생산 및 투자환경 개선, 산업기반시설 확충, 기업 지원 제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업과 행정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세아베스틸은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전기로 생산설비를 연계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저탄소 철강 생산이 가능한 일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군산 저탄소철강 거점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특구 지정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시에 건의했다.

김 당선인은 “군산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항만·전력·용수 인프라를 갖춘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의 현장 수요를 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정부제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업과 행정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여름철 안전 확보 ‘총력’ 2(題)

재난사고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김제시는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사고 위험 지역 (모악산, 구성산 일원) 내 국가지점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산객 이용이 많은 모악산, 구성산 등 산악사고 위험지역 내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110여 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가지점번호판의 훼손 여부, 표기 상태, 설치지역 내 통신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로 인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는 정비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해 이용객들이 긴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지점번호판은 산악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과 등산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지점번호는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지점번호판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를 119 등에 알리면 된다.

식중독 발생 예방 특별 위생점검

김제시는 위생관리팀이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 전문 음식점과 횡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리장 위생상태와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조리사 개인위생 관리 실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칼·도마 등 조리기구류 세균수를 측정해 위생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얼음은 전문기관에 수거·검사를 의뢰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만큼 식품 취급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제조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자체 공무원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가족 친화적 예방접종 시행

백일해·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접종

고창군이 영유아 감염 차단과 여성암 예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예방접종 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00명 규모로 추진되며, 향후 4년간 총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27~36주)와 출생 전·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직계존속이 대상이다.

백일해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호

흡기 감염병으로, 가족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와 가족이 함께 예방접종에 참여함으로써 영유아 건강 보호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HPV 무료 예방접종은 18~26세 여성 군민으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 감염을 예방해 여성암 발생 위험을 줄인다.

접종 기간은 7월부터이며, 접종 장소는 고창군 보건소다.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백일해 접종 대상자의 경우, 임신·출생 관련 증명서류와 산

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다양한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질향상에 힘쓰고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예방은 가장 확실한 건강 관리 방법”이라며 “가족 친화적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노을자연장’ 조성 마무리

잔디형 및 수목형 자연장 7100기 규모

부안군은 오랜 준비 끝에 군민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부안노을자연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첫 삽을 뜬 지 3년 만이다.

이번 준공은 단순히 장사시설 하나가 들어선 것을 넘어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장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하서면 장신리 일원에 들어선 부안노을자연장은 총사업비 8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잔디형 자연장 5500기와 수목형 자연장 1600기 등 총 7100기 규모로 조성됐다.

그동안 부안에는 자연장 시설이 없어 많은 군민들이 인근 지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부안군은 25일 ‘부안노을자연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부안군>

비용 부담은 물론 고인을 멀리 모셔야 하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고향에서 태어나 살았던 군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과 함께 부안에서 영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설자연장지는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복지 공간”이라며 “출생과 보육, 교육, 일자리, 노후를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군민과 함께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군민 누구나 존엄한 삶과 품격 있는 마지막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용기와 희생 잊지않겠다’

김제시는 25일 ‘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회 김기중 김제

시지회장,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보훈가족,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 영상 상영과 김제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기념사, 6.25전쟁 회고사,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제시립합창단의 기념 공연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곡들로 구성돼,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정 시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 덕분임을 잊지 않겠다”며,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 모두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축사 화재예방 ‘최선’

무료 안전점검소화기배부

전북 고창군이 여름철 냉풍기 가동 등에 따른 축사 화재예방에 총력을 펼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여름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등 화재 안전점검을 무료로 진행하고 소화기와 소화패치를 나눠주고 있다.

축사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평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창군 안전총괄과에서는 집중 점검시 무료점검과 가급적농장에 대해 사법적으로 고온감지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방식의 소화패치를 배부해 축사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사가 외진곳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워 화재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예방사업을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지역 인재 육성 안전 심의·의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회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4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호 안건 2026년 1학기 장학금 선발 심사(안), 제2호 안건 2026년 장학금 추가모집(안)을 심의했으며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안건인 2026년 1학기 장학금 선발 심사에서는 반값등록금, 다자녀 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전학 장학금·취업 학원비 지원금 등 4개 분야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재단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서류 검토를 거쳐 총 107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억 6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2호 안건인 2026년 장학금 추가 모집(안)을 의결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선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부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우즈베키스탄 농업 연수단, 김제 종자사업소 방문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씨감자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김제시 첨단농업종자사업소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첨단농업종자사업소는 조직배양과 양액재배 기술을 통해 증식한 무병 미니씨감자를 매년 1,000여 농가에게 보급하며 안정적인 감자 재배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는 곳이다. 이날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바이러스 검출과 조직배양, 분무경 생산 기술 등을 소개하고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조직배양실과 온실 등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과정별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분무경 시스템 활용 과정과 기

술 매뉴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였다.

한 연수생은 “김제의 씨감자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엿볼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귀국 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농업 연수단 방문은 김제시의 체계적인 씨감자 생산 시스템과 현장 경험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군에 1000만원 기부

고향사랑기부 동참

전북은행 고창지점(최종구 부행장, 김규진 고창지점장)은 지난 24일 고창군청을 찾아 100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로 2024년 2000만원, 2025년 2500만원 기탁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3년째 고창군에 마음을 전해왔다.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꾸준한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종구 부행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변함없는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전북은행 고창지점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변산면 지사협

생명지킴이 교육·정기회의 개최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변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생명지킴이 교육 및 2026년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실시된 생명지킴이 교육에서는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과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및 전문기관 연계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참석자 위원들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4차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2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길 소망했다.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희생과 헌신 기억’

고창군이 25일 고창군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조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 보훈단체 회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6·25전쟁 관련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6·25참전용사 격려품 전달, 감사의 손편지 및 꽃 전달, 기념사와 축사, 만세삼창,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창보훈이어나눔이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의 손편지와 꽃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모범보훈대상자 4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서부보훈지청과 함께 6·25참전용사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소중한 결실이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황산면, 주민 행복 품은 주민참여 복지센터 개관

김제시는 25일 황산면 봉월리 소재 ‘희망을 여는 황산면 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산면 기초생활기초종합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 시비 8억 4천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희망을 여는 황산면 복지센터’는 연면적 752.73㎡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북카페, 공유주방, 당구장, 대강당, 소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주차장과 야외활동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복지센터는 앞으로 주민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황산면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희망을 여는 황산면 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심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체계화 나서

외국인 정책 5개년 로드맵 마련 장기 정착 중심 정책 전환 인구감소 대응·인력 성장 지원

완주군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2030 완주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감소 및 지역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정표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외국인정책팀 신설과 외국인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완성했다.

군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 친화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삼고 생활안정 지원, 사회통합 강화, 정착 및 성장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기존의 단기 체류나 일회성 행사 중심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외국인 주민의 장기 정착과 실질적인 생활문제 해결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아울러 개별 부서 중심으로 분산해 추진하던 사업들을 민관 협치 체계로 촘촘히 연계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생활안정 지원·사회통합 강화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및 문화공간 △체류유형별 정착사다리 구축 △지역산업 기반 외국인력 성장 지원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국어 생활정보 제

공, 외국인 멘토링,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의료 통번역 지원, 위기대응 원스톱 서비스, 상생 커뮤니티 운영, 다문화 축제 개최, 비자전환 상담, 채용박람회 운영, 산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정책팀을 컨트롤타워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처, 출입국·고용기관, 대학, 기업, 농협,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생활 안정부터 취업·정착·성장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 친화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기자

순창장류축제·광주비엔날레 관광 활성 '맞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셔틀버스 운영 등 교류 확대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 예비 글로벌 축제'인 순창장류축제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올해로 제2회회를 맞이하는 순창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활용한 상호 홍보 △해외 관광객, 외국인 및 인턴인 초청 협력 △기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축제 기간 중 광주비엔날레와 순창장류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식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K-푸드와 K-컬처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직원 9명 공개채용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공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직 직원 9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행정 7급 3명 △기술 7급(윤진) 2명 △기술 7급(체육-수영) 4명으로, 공단의 행정역량 강화와 공영마을버스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7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과정은 외부 전문가 위탁 및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전용 누리집(<https://wanju2026.ncspl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근기자

순창군, 회문산 해원제 엄수...6·25 희생 녀기려

구립면 비목공원에서 제2회 행사 순국선열·양민 희생 추모



<사진=순창군>

순창군 구립면 회문산 비목공원에서 6.25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제2회 회문산 해원제가 25일 개최됐다.

회문산 제전위원회(위원장 김윤석)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회문산 일원에서 희생된 순국선열과 무고한 양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조정희 의원, 순창군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유가족,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위령제, 추념사와 추모사, 헌시 낭송, 비목 제창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 차분히 이어졌다.

아울러, 구립면 청년회 김현근 회원의 헌시 낭송과 참석자들의 '비목' 노래

제창이 이어지며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제773부대 3대대장병들의 조종 발사로 희생자들에 대한 예를 다했다.

김윤석 제전위원장은 "올해로 21회를 맞는 회문산 해원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이 뜻깊은 행사를 지속해 나가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6.25 전쟁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이라는 뿌리 위에서 피어난 결실임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해원제가 지역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잇는 뜻깊은 추모의 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시행

맞춤형 정책 기초자료 활용 7월 3일까지 온라인 참여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갱신한 완주군이 아동이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진단에 나섰다.

군은 지역 내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완주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 대상으로 전개한다.

특히 아동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각 학교와 어린이 집을 통해 배포한 정보 무늬(QR코드)나 접속 주소(URL)를 활용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2년 주기로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식 조사다. 완주군은 이를 통해 지역의 아동친화 수준과 현재의 정책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수요자인 학생과 보호자,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근기자

남원농업기술센터, 불용 임대 농기계 매각

농업인 대상 공개매각 추진 트랙터·굴삭기 등 10종 포함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불용 임대 농업 기계에 대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불용 농기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등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불용 결정된 장비 중 활용 가능성이 있는 농기계류를 지역 농업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 농기계는 다수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일정 기간

사용 후 성능 저하, 정비비 증가,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체·관리가 필요하다.

매각 대상은 소형트랙터, 소형굴삭기, 경운기, SS기 등 총 10종 28대이며, 매각은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투찰할 개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2차 매각 대상 농업 기계와 1차 매각 잔여 불용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불용 농기계 매각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상하수도요금 온라인 납부 서비스 개시

남원시누리집서 조회·납부 가능 시민 편의·행정 효율 향상

남원시가 시민들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namwon.go.kr/waterpay>을 통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원시 누리집에 접속해 상하수도요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

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납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부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보다 신속한 요금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남원시는 누리집에서 상하수도요금 납부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 편의 증진과 종이 고지서 사용 감소, 행정 효율성 향상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누리집 기반 납부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폭염·집중호우 대비 안전망 점검

11개 읍면 읍터·취약지역 살피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확인

순창군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11개 읍·면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주민 대피체계와 재난 취약지역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무더위쉼터,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읍·면별 대응체계와 주민 대피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광희 부군수의 지휘 아래 안전재난과 합동점검반은 각 읍·면장과 자율방

재단으로 구성된 주민대피지원단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난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점검반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비상근무 체계와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명령권 위임 운영 현황 등을 살폈다. 또한 마을별로 지정된 '마을 1인 주민대피지원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며 유사시 주민 대피 절차와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순창읍 사정2마을회관과 인계면 호계할머니경로당, 동계면 상의령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인계 노동지구와 동계 수장지구를 비롯한 산사태 및 토석류 유실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



<사진=순창군>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연락망 정비와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시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단순·복합민원 등 9명 표창

완주군이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정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우수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3일 군은 군청 전라회의실에서 유희태 군수와 올해 상반기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표창은 단순민원, 복합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우수 직원을 3명씩 선발했다.

각 분야 최우수 직원으로는 단순민원에 정지석 주무관, 복합민원에 김석주 주무관, 국민신문고에 김지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운영 중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기한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했는지를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하

는 제도다.

간담회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로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군민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일선 업무 중 겪는 애로사항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행정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느낀 제도적 개선점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부서 간 협조 체계 강화 방안 등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감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근기자

남원시, 학교·공공급식 생산자-현장 소통 강화

남원시는 지난 24일 남원 그린웨딩타운에서 학교·공공급식 지역가공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학교·공공급식에서 사용되는 지역가공먹거리의 공급 확대와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전북바이오파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장수·순창 지역 가공식품 생산업체 21개소와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공공급식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가공품의 활용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생산업체들은 고춧가루, 추어탕, 김부각, 장류, 유제품, 요거트, 김치류, 사과즙 등 다양한 지역가공먹거리를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으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과 공급 방식, 제품 개선사항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은 지역가공먹거리의 품질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생산자들과 소통하며 학교급식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 보절중학교 AI디자인 특성화학교 전환 추진

전북 남원시 보절면이 교육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보절중 특성화학교 지정 추진위원회'(이하 특성화추진위)가 지난 22일 보절중학교에서 공식 출범하며, 보절중학교의 AI 융합 디자인 특성화 학교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공개했다.

특성화추진위는 이성수 보절면발전협의회장과 류명기 보절중학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윤미 보절초등학교장, 김대기 보절면장, 김해관 화가, 주민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로서 보절중학교의 AI 융합 디자인 특성화학교 지정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보절면은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보절중학교를 AI와 디자인 교육을 특화한 학교로 발전시켜 전국 단위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성화추진위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절중학교의 특성화 교육과 보절아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해 학생과 주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성화추진위는 앞으로 남원시와 전북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정 개발, 예산 확보, 학생 모집 방안 등 특성화 학교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무주군, 제7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성료

무주군은 25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7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6·25전쟁유공자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신윤식-이하 6·25전쟁유공자회 무주군지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기념식을 비롯한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와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보훈·안보단체 회원들과 6·25 참전 유공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평화 정착 및 비핵화 촉구, △6·25 전쟁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 수호와 국민통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6·25 노래와 만세삼창을 부르면서 6·25전쟁 기념행사의 의미를 내뼐었다.

기념식에서는 6·25전쟁유공자회 무주군 지회 최동환 씨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으로 보훈 가족의 귀감이 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노인대학 어르신 대상 웃음치료 교육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지난 23일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노인대학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암 예방을 위한 웃음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암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돕고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문 강사가 참여해 웃음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서는 웃음이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우울감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웃음 제조와 웃음 실습을 함께 진행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8월 지급 준비 본격화

진안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신규 위원으로 이우석 진안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과 김미화 추진면 이장협의회 회장에 위촉장을 수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앞으로 7월 중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전철민 기자

무주군, 사회적 고립 막는다!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진행 '더블 체크' 시범사업 참여

무주군이 정서적 취약계층 쉼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더블체크' 시범 사업 추진에도 동참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 1인 가구가 증가(6월 기준 7,251가구)함에 따라 이들의 고독 및 고립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요리교실'과 '월례' 프로그램 등 총 2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매주 화요

일마다 총 4회기로 진행된다.

26일 무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는 지역 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김석중 강사가 △고독사의 주요 원인과 △위험징후를 비롯해 △위기가구 발굴 방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함께 고독 고립 위험 가구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

그램 외에도 '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더블체크"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이 사업은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읍면 팀장이 함께 상담 응용과 지원 가능 서비스를 재확인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내에서는 무주군만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경제, 건강, 돌봄, 주거, 안전 등 위기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취약 가구 및 서비스 누락 가구에 대한 교차 점검을 진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의회, 제9대 의회 폐원식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24일 장수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장수군의회 폐원식을 갖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원식에는 최한주 의장을 비롯한 제9대 장수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공로패를 전달하며 지난 4년간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노고를 기렸다.

제9대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란 의정 목표 아래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국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최한주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9대 장수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개원할 10대 장수군의회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운영

'오수 귀농인 거주시설 및 딸기 스마트팜' 입주자 모집

임실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오수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및 딸기 스마트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그동안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장년층 중심의 우수한 귀농 인구를 유치해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 준공 승인을 거쳐 3월 준공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준비를 마쳤다.

모집 규모는 총 10가구로, 최종 선발된 입주자에게는 66㎡ 규모의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과 함께 현재 조성 중인 딸기 스마트팜 실습농장이 제공된다.

딸기 스마트팜 실습농장은 총 사업비 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막바지 공정이 진행중이며, 오는 8월 준공 후 거주시설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오수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사진=임실군>

입주자들은 스마트팜 실습을 통해 고소득 작목인 딸기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습농장 규모는 구역별로 544㎡에서 660㎡ 수준으로 조성되며, 입주자들은 8월 초 입주를 시작해 9월부터 본격적인 작물 식재와 영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입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운영되며, 예비 귀농인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

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청일 현재 임실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임실군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중 향후 임실에서 딸기 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8월 초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4회 장수쿨밸리페스티벌' 7월 17일 개최

24일 추진위원회 임시회 본격 준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장수군의 대표 여름 계곡 축제인 '제4회 장수쿨밸리페스티벌'이 지난 24일 개최된 추진위원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쿨밸리페스티벌 추진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하고 공연·체험 콘텐츠 구성부터 교통과 안전·머거리 운영까지 축제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

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장수쿨밸리(Cool Valley)페스티벌은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변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는 여름 계곡 축제다. 이번 축제는 '자연이 품은 계곡, 행복이 머무는 하루'라는 슬로건 아래 장수의 청정 자연과 시원한 계곡을 활용한 체험형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EDM 공연과 물놀이가 어우러진 '쿨밸리 벨리밤'과 '게

릴라 이벤트 체험' 확대, 축제기간 내내 운영되는 '뎌션 송어잡기' 등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열려 전국적인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전망이다.

장수군은 이번 축제에서 '장수쿨밸리 트레일레이스'도 기존 하루에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으로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참가자들이 축제와 함께 장수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베트남 다낭시 방문...교류 협력 강화

'한국어·태권도 통합 교육모델' 등 K-스포츠·문화 전파

무주군이 태권도를 비롯한 문화·관광·경제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 일행은 지난 24일부터 국제우호협력도시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 중으로, 오는 27일까지 2박 4일간 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껀레동 인민위원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무엇보다 24일

은 '무주군-다낭시 껀레동 간 국제우호 교류 협약'은 물론, 껀레동 설립 1주년(2025. 6. 24)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현지에도 도착한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 무주군 대표단은 응우옌 티 비엠희 면서기(단장) 등 껀레동 인민위원회와의 공식 환담을 시작으로, 교류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과 껀레동 간의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민간 교류 활성화, △국제 우호 도시 간 신규 교류 및 교육모델 발굴, △두 지역 공동 발전

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현지 학교 내 태권도 보급 및 발전 협력, △기업 연계 및 무역 증진 협력, △관광 산업 발전 협력에 관한 껀레동의 제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해 이후 행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5일에는 다낭 현지의 한국 국제유치원을 방문해 '한국어 및 태권도 문화 통합 교육모델'을 소개하며 K-스포츠와 한국 문화를 전파해 교육·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추가 접수

개소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임실군이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 지역 유학생 가족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2026년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의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고향사랑기금으로 확보한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

해 올해 총 14개소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접수를 통해 빈집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

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였던 6개소와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이다.

사업 대상은 청우면, 신평면, 삼계면, 지사면, 관촌면 농촌유학 운영학교의 통학구 내에 위치한 빈집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선,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실거주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내달 3일까지 해당 면사무소 총무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위기 대비 취약지역 현장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점검

장수군은 지난 24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정우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침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부군수는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하천공사장,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물 관리 상태와 배수 기능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 대피 계

획과 비상 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확인했다.

특히 읍·면별 중심으로 주민대피 명령 준비 상황과 비상연락체계, 취약계층 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기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재난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조림지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사고예방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임실군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성장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조림지가꾸기사업"에 총사업비 15억 3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660h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1차 사업(454ha)을 추진중이며, 8월부터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조림 후 5년 이내의 조림지 가운데 조림목이 생육초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

치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임실군은 이를 통해 조림목의 생존율을 높이고 숲의 경경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의무 및 장비 안전 사용법, 폭염·낙상·전도 등 작업중 사고 예방 요령과 벌·뱀 등 산림 내 위험 요소 대응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시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고창 아산면 김말순 명예면장,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아산면 김말순 명예면장(구암마을)이 지난 2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말순 명예면장은 "아산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한 성금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금구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수연, 이하 협의체)가 25일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50세대에 총 5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점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료품(라면, 햇반, 김, 통조림 등)과 생필품을 가구당 10만 원 상당으로 구성했으며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하절기를 앞둔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살피는 등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넸다.

최수연 민간위원장은 "지속되는 고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위의 취약계층이 느끼는 소외감을 더 할 것"이라며 "이번 꾸러미가 이웃들의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언제나 곁에 함께하는 지역사회'가 있다는 든든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익산산림조합·달빛소리수목원, 푸른익산 조성 '한뿔'

익산산림조합 성금 3천만원 달빛소리수목원 수목 5주 기탁

푸른익산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25일 익산산림조합이 성금 3,000만 원을, (취달빛소리수목원)이 수목 5주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탁된 성금과 수목은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전달됐다. 성금은 푸른익산 만들기 사

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수목은 익산시청 도시숲에 식재돼 시민들을 위한 녹색 휴식공간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산림조합은 산림경영 기술 지원과 산림사업, 경제·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산림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취달빛소리수목원은 춘포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정원 제2호이자 익산시 제1호 민간정원이다. 다양한 식물자원과 아름다운 정원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들에게 자연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공하며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금동, 주민 손길로 키운 감자 이웃 돌봄으로 결실 맺다

남원시 금동 우리동네 사랑나눔 텃밭에 모인 주민들은 지난 1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이 함께 가꾸은 감자를 수확했다.

지난 17일 주민들이 함께 수확한 감자는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은 물론 마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까지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감자가 고루 전해졌다.

특히 감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이뤄졌다. 평소 추진하고 있는 '1일1가구 방문'과 연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도 함께 추진됐다.

25일에는 금동 시책 '반짝반짝 금동, 냉장고를 부탁해' 반찬나눔 사업과도 연계해 통장과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자조림 등 밑반찬을 직접 만들었다.

/남원=김종원 기자

정읍새일센터 훈련생, '정리수납' 재능기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지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생활공간 자문 훈련생 19명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 4 가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리수납 재능기부를 펼쳤다.

이번 활동은 '생활공간 컨설팅 전문가 과정' 훈련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실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훈련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동시

에 취약계층 가정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생들은 해당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집 안 환경과 생활 실태를 꼼꼼히 살핀 뒤 각 가구에 맞는 맞춤형 정리 계획을 세웠다. 이후 흩어진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가구와 공간을 다시 배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좁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납 환경을 크게 바꿨다.

/정읍=김정연 기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성금 500만원 기탁

익산시 여성단체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익산시는 25일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정자)'가 시청을 방문해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월 열린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 수익금의 일부로, 청소년시설에 전달돼 라면 구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보다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자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마련된 수목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최태환 태성콘크리트 대표, 완주에 300만원 기탁

완주군 지역발전 염원

(주)태성콘크리트 최태환 대표가 지난 24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 대표는 평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완주군의 성장과 군민 복지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뜻을 담아 마련했다.

최 대표는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 기념면지사협, 취약계층에 반찬 나눔

장수군은 기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1인 가구, 장애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30세대를 대상으로 '온정의 반찬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정성을 담아 직접 반찬을 만들고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폈다.

특히 반찬 전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생활 속 필요한 안전수칙



〈一事一言〉



감시자의 변신과 서글픈 저널리즘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질병이 또다. 지방선거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들려온 한 현직 언론인의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대변인 직책 소식은 지역 사회와 언론계에 깊은 허탈감과 서글픔을 안겨주고 있다. 투표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력을 감시하던 서슬 퍼런 팬대가 권력의 중심부를 호위하는 '임'으로 돌변한 순간이다.

이번 사태가 지닌 파장과 씁쓸함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이나 이직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자리를 옮긴 인사가 선거 직전까지 지역 매체의 지방선거 특별취재단장이자 정치행정 보도를 총괄하던 책임자였다는 점 때문이다. 선거 기간 내내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정책의 허실을 따지며, 편집권을 행사하던 수장이 투표 종료와 동시에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모멸차다. "그동안 그 언론사가 쏟아낸 선거 보도는 과

연 공정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 짜거나 의도적인 비틀기가 없지는 않았는지, 언론이라는 공적 자산을 개인의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이나 징검다리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번 직행 사태는 해당 언론사는 물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지역 언론인 전체의 신뢰도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시킨 치명적인 오점이다.

정치권과 당선인 측의 단일한 인식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당선인 측은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소통 능력과 업무 이해도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비판 여론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인사를 철저히 숨겨놓음은 분명히 했다. 이는 지역 언론을 권력의 동반자나 견제 세력이 아닌, 언제든 필요할 때 데려다 쓸 수 있는 '홍보 부속품'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언론관의 방증이

다. 권력자가 언론인을 직행시키는 관행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정당하지 못한 정치적 계산과 다름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인수위 대변인이 향후 전주시청 공보관이 라는 핵심 요직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보관은 시의 막대한 홍보 예산과 언론 집행권을 쥐고 지역 언론계를 상대하는 자리다. 어찌까지 동료였던 이가 오늘 권력의 핵심이 되어 예산과 권한을 쥐고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구조는, 지역 언론 생태계를 기형적으로 왜곡하는 주범이다. 제도적 허점을 노려 최소한의 유예 기간이나 취업 제한 조치도 없이 권력의 품으로 뛰어드는 이른바 '폴리니스트(Polinalist)'들의 행태를 막을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경종을 울린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독자와의 신뢰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언론은 존재 가치를 잃고

한낱 홍보지로 전락한다. 이번 사태는 결코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역 언론계 전체가 뼈를 깎는 자성에 나서야 할 때다. 내부 윤리강령을 보다 촘촘하고 엄격하게 재정비하여, 선거 보도 관여자의 정계 진출에 대한 엄격한 '취업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한다.

감시자가 감시 대상과 결탁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보루는 무너진다. 스스로 권력의 품에 안긴 이들에게 저널리즘의 고고한 가치를 묻는 것조차 사치일지 모른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의 책무는 명확하다. 권력에 취해 펜을 쥐은 이들의 반지리를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로 채워 넣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저널리즘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지역 언론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독립 언론으로 거듭나는 뼈아픈 예방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설

악성 민원 학부모 검찰 송치, 교권 보호 실효성 키우는 계기 돼야

그동안 교육 현장을 병들게 해온 악성 민원 학부모가 결국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전북지역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해 온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단순한 형사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이 더 이상 '학부모의 과도한 열성'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현장 교사들은 물론 교감과 교장 등 학교 관리자까지 민원 폭탄을 감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을 시도하거나 '좋게 마무리하자'는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는 사이 악성 민원은 더욱 조직화되고 대담해졌다. 결국 이번 검찰 송치는 교육청과 사법기관이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는 공적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러나 검찰 송치만으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육청의 법률 지원과 전담 변호사 제도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악성 민원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담 대응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수사 기관 연계가 이뤄지는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와 상습적인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민원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 이번 검찰 송치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슬픔으로 가는 길 / 정호승

내 진실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 섰다.
낮선 새 한 마리 길 끝으로 사라지고
길가에 핀 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내 진실로 슬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슬픔으로 걸어가는 들길을 걸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슬픔을 앞세우고 내 앞을 지나가고
어디선가 감나무 지는 잎새 하나
슬픔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
내 진실로 슬픔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
끝없이 걸어가다 뒤돌아보면
인생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저녁놀이 파묻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나는 다시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 섰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 등록번호 전북가-00022(광주)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동양지사 010-9678-4271 안주지사 010-8640-6855 팔복지사 010-3015-4781 송전지사 010-5242-3894	군산지사 010-8641-7942 남원지사 010-2285-3867 익산지사 010-9560-3075 김제지사 010-4572-6112 정읍지사 010-2800-2934	무주지사 010-8411-0835 임실지사 010-8642-6502 진안지사 010-2433-1721 장수지사 010-8626-6049 순창지사 010-5312-7283
부안지사 010-7247-3047 고창지사 010-2258-3734 완주지사 010-3672-0308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인생을 기록한다?



젊은 시절 국가의 산업역군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일구는 데 일조하였던 70대 이상의 어른들이 찾는 노인일자리가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반대 기류에 파묻혀서 어둡게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려운 국가경제와 가정을 유지하며 가족들과 먹고 살아가야 했던 40~50년 전의 우리 사정은 지금처럼 여유롭고 여가를 즐기며 취미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노령층은 일을 찾아 바쁘게 뛰어다니며 허기진 배 허리띠 졸라매며 살던 시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쉬면서 먹고 살만한 시대임에도 뭔가를 하며 움직여야 하는 시절을 맞이 못하고 일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가 생기면서 편히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던 노령층에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혼자 집에 있으며 무료함을 달래던 시간을 때려 노령층과의 대화와 소

통을 통해 혼자 아니고 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공동체 생활과 적당한 시간을 움직이며 체력을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선호하며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참여 또래의 노령층은 집에 우뚝 서니 혼자만 있으면 우울증에 무료함이 짓누르는 시간을 노인일자리 시간에 참여하면서 모든 잡념을 잊어버린다. 또 적당한 움직임이 규칙적인 운동이 되어 건강을 지켜주어 활발하고 긍정적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던 스트레스가 노인일자리를 통해 화-악 풀려 정신건강에 좋다. 이야기 친구가 생겨 살맛 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바쁜 일상에서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노령층이 감당하는 역할 부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는게 현실이다.

혹자들은 노인일자리가 앞서서 놀지만 간단, 관에 청소년력이 있는데 노령층에게 청소를 하게 하면 대체 몇 명의 청소년력이 필요하냐며

산남비를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개선편도 있다. 관계기관에서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발전해 가리라 믿는다.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강화사업이 눈에 띈다. 노인공익사업에서도 인생이야기 기록작가단의 활동이 흥미롭다. 이 시대가 자신이 일하며 겪었던 사실들을 기록하는 회고록, 또는 자서전을 출판하며 후세대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남길려는 상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쫓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수기와 만 60세 이상 시니어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기록하는 '인생이야기 기록작가단'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생이야기 기록작가단에는 왕년 예가나 힘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하고 사회생활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다.

어렵고 힘든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부를 위해 3년 만 더 도와달라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뒷바라지한 아버지의 순애보, 보충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전주로

이사 와서 호롱불 밑에서 10년4개월 고생하며 혈액형 검사를 하여 빛을 갖고,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신장염을 이겨내기 위한 삶과 힘겨운 싸움에서 살겠다는 의지로 병마와 싸워 이겨낸 의지의 아버지, 어린 시절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초근목피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진실한 신자가 교통사고 후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겪은 흔들린 신앙심이 마침내 합의가 되어 제자리로 돌아온 신앙생활, 6.25사변 때 마을에 진주한 인민군들의 공산당 교육을 받았던 시절 등은 근대 한국의 어려운 실상을 가감없이 경험을 통한 진솔한 이야기의 기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무슨 똥똥지 같은 이야기냐고 20~30대 청년들은 의아해 할지이나 이는 노령층이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면서 생활에서의 경험 이야기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과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본부의 야심 찬 사업이다.

한중문화회회장 박영진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 TIMES

전북타임스신문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



남원시 민선 8기 4주년 성과

‘시정 대변혁’으로 남원 대도약의 마침표 찍다

민선 8기 남원시정이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웠다. 지방소멸 위기와 서남대 폐교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던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유치, 국립의전원(국립의전원) 법률안 국회 통과 등 8만 시민의 숙원 사업들을 잇달아 해결하는 저력을 발휘한 데 이어 과감한 국립기관 유치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내며 호남권 핵심 거점 도시로의 대도약을 이뤄냈다.

특히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 동안 교육, 주거, 일자리,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시정 혁신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을 보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적인 혁신 모델로,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과 함께 이룬 남원 민선 8기 4년 동안 확실하게 달린 남원의 주요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남원 대변혁의 신호탄, 국립기관 및 교육 기반 유치...서남대 폐교 문제, 오랜 난제 해결

민선 8기 남원 시정의 가장 극적인 성과는 오랜 기간 지역의 아픔이자 난제였던 서남대 폐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료 중심도시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이다.

시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공모에 전북대학교와 함께 최종 선정되어 국비 등 604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7년 정식 개교를 목표로 폐교된 서남대 캠퍼스를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재생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에 이미 올해부터 전주 캠퍼스에는 250여 명의 학생들이 유입되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서남대 캠퍼스가 완성되면 재학생 1,000명 규모의 글로벌캠퍼스, K-엔터테인먼트 등 특화 학부 학생들이 남원에 정주하며 지역 경제와 대학이

지역 난제 해소, 정주 매력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증명하다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학이 주변 주거 안정을 위해 250명 규모의 ‘연합형 행복기숙사(161억 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굵직한 국립기관 연쇄 유치도 확정되었다. 이로써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지리산권 공공의료로 책임질 중앙 의료 인프라 구축이 현실화되었다.

아울러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선정,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확정(국비 490억 원), 경찰수련원 건립 등 대형 국립기관들을 연이어 유치하며 도시의 기초 체급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공약이행률 92%·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신뢰와 역량으로 증명된 명품 행정 민선 8기 남원시정의 이와 같은 거침없는 질주 뒤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책임 행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탁월한 행정 역량’이 자리 잡고 있다. 남원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체계적인 로드맵 관리와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통합공약이행률 92%**를 달성하며 대시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실제로 민선 8기 41개 공약사업 중 27개 사업은 이미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며, 14개 사업 역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전 사업이 차질 없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원시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민선 8기 4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획득,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인정받았다.

행정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외적 평가에서도 남원의 위상은 돋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남원시가 기획·재정·복지·환경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총출행복기숙사(161억 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이는 민선 8기 남원 시정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로 이어지는 총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망을 구축했다.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요양에서 무덤까지...시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정주여건’ 대폭 개선

한편 민선 8기 남원 시정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로 이어지는 총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망을 구축했다.

실제로 출산·돌봄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가정이 대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주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을 운영하여 24시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취약지역 의료 안전망을 완벽히 보완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발전지구 지정(231억원)을 이끌어 낸 것을 필두로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원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교육 플랫폼인 ‘인재학당(만인재)’ 건립을 추진하여 대도시 부럽지 않은 고품질의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도,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도입했다.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 ‘피움하우스’와 반값 임대주택인 ‘반할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초고령 사회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확충은 물론, 특히 비대면 의료·문화 서비스 기능 및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전국 최고 경로

당 중심 비대면 진료’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환경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전 세대로 이어지는 총출행 정주 시스템을 민선 8기에 완성하면서 그야말로 살고 싶은 도시로 안착하는 중이다.

미래 신성장 산업 선점과 스마트 농업 혁신

이에 그치지 않고, 남원시는 전통문화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에 첨단 신산업을 융합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미래 먹거리 선점에도 성공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과 재정 성과로 고스란히 증명됐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동안 경제·미래산업·환경 등 전 분야를 통틀어 총 327건, 8,05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기록을 세우며 지역 발전을 위한 든든한 마중물을 확보했다.

신산업 분야의 성장세도 매섭다. 4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과 전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190억 원)을 통해 드론·항공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섰다. 또한 국내 최초 곤충산업 거점 단지(250억 원) 및 영호남 유일의 바이오 테스팅센터(190억 원)를 통해 첨단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전초기지를 견고히 구축했다.

농업 분야 역시 938억 원 규모의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해 첨단 과학 영농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이러한 혁신 성과들은 단순히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졌다.

노암산업단지 분양률 100% 달성과 일반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25.7)은 강소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견인차가 되었다. 그 결과 남원시는 2025년 상반기 기준 고용률 68.3%로 전국 시·군 3위를 달성한 데 이어, 청년고용률(45.7%)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인터뷰>

최경식 남원시장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강소도시 완성에 모든 것 쏟아부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시간 동안 ‘시정 변혁’의 최전선에서 거침없이 달려왔다. 차기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민선 8기 임기를 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힌 최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미래보다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사명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일군 숙원 사업 결실 취임 당시 남원은 인구 감소와 서남대 폐교 등으로 깊은 정체 체증을 겪고 있었다. 최 시장은 “낡은 틀을 깨지 않으면 남원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밤낮없이 발로 뛰었다”고 회상했다.

그 결과 8만 시민과 30만 향우의 염원이었던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유치와 국립의전원 법률안 국회 통과라는 역사적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최 시장은 “이 모든 성과는 시장을 믿고 성원해 준 시민 여러분과 묵묵히 행정 혁신을 따라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다.

민선 8기 남원시가 가장 집중했던 ‘생애주기별 정주여건 개선’은 최 시장의 행정 철학이 가장 잘 녹아난 분야다. 아무리 훌륭한 첨단 산업을 유치하더라도 정착 시민들이 살기 불편하면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최 시장은 대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했던 불편을 없애 전북 1호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만원 임대주택 ‘피움하우스’, 이동권을 보장한 어르신 무상교통까지 총출하게 챙겼다.

최 시장은 “남원이 대도시는 아니지만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머물고 싶으며 노후가 편안한 ‘작지만 살고 싶은 강소도시’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싶었다”며 “정주여건의 대혁신을 통해 남원만의 단단하고 내실 있는 자립 기반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 “대도약 향한 남원의 여정에 끝까지 힘 모아달라” 임기 마무리를 앞둔 최 시장의 시선은 이미 남원의 먼 미래를 향하고 있다. 민선 8기 동안 확보한 327건, 8,05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예산은 남원의 지평을 바꿀 거대한 씨앗들이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확보된 성과와 예산들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따뜻한 변화로 완전히 체감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유치한 국립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미래 신산업의 싹을 틔우는 데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었다”고 다짐했다.

이어 시민들을 향해 “남원의 대도약을 향한 행정의 연속성과 혁신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남원의 미래를 완성해가는 이 거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